광주로타리클럽, 백혈병소아암 성금 전달

광주로타리클럽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4일 봉사금 150만원을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전달했다.(사진)

홍기철 광주로타리클럽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봉사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는 뜻을 모아, 백혈병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래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로타리클럽은 향후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치료비 보조, 자활 및 재활지원, 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주택보수 및 가계지원 사업 등에 연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다각도로 모색하기로 했다.

최영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이사장은 "연초부터 로타리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면서 "이 소중한 뜻을 정성스럽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경총,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4일 오전 홀리데이인호텔 컨벤션홀에서 을사년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협회·단체·연구원장과 광주경총 회원기업 등 400명 인사가 참석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광주경총은 716개사의 회원과 1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 지역 청년과 중장년 4913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2673명에게 직무교육을 통해 장기근속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회원사가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경영애로 해결에 집중하고 회원기업 의견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경총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교통공사, 'CEO와 함께하는 북토크'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서구 마륵동 본사에서'CEO와 함께하는 북토크'를 열고, 임직원 소통 활성화 및 책읽는 일터 문화 구현에 나섰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CEO와 직원들이 책을 읽은 후의 소감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건전한 사내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었던 조익문 사장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진행되며 참여 인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독서를 통한 임직원 개인의 발전이 곧 조직 전체의 성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서경영으로 소통을 활성화하고 조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GGM,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환경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 운동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최근 밝혔다.(사진)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지난 2023년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했다.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참여자가 실천 의지를 공유한 뒤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GM은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음식물 잔반 남기지 않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개인 컵 사용하기 등 사내에서 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해 왔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큰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도시공사, 역량 강화 인재개발원 개소

광주도시공사가 최근 내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개발원을 신규 개소했다.(사진)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개소한 인재개발원은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변화관리·시각확대·혁신사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해 광주의 미래혁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인재개발원은 △직무교육, △직급교육, △혁신트렌드 교육, △마인드셋 교육, △조직소통교육 등 약 50여개의 교육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특히 사내강사를 중심으로 한 실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직무지식과 기술습득을 돕는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인재개발원을 적극 활용해 직원들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지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 광산구-호남대, 생명·재산 보호 협약

광주 광산구 하남동은 최근 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호남대학교 대학생전문의용소방대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하남동의 재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선제적 예방·대비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하남동 소방 및 재난 안전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훈련 등 정보교류 협력체제 구축 △현장활동 계획·참여를 통한 상호협력 활동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박혜경 하남동장은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실천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각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시,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이병욱씨 위촉

광주시는 광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이병욱(사진) 전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5년 1월23일부터 2027년 1월22일까지 2년 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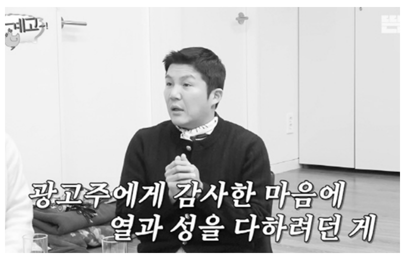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신임 지휘자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대학 지휘과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전문연주자 과정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귀국 후 TIMF앙상블 수석 지휘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 신임 지휘자는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국내 교향악단뿐만 아니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일본 가나자와 오케스트라 앙상블, 유럽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 OENM 등 해외 교향악단과도 작품활동을 했다. 2018년부터 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6년간 재직하며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휘자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풍부한 경험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광주시민의 눈높이를 맞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조세호, PPL 논란 거듭 사과 "열심히 했는데 서툴렀다"



코미디언 조세호가 과거 간접광고(PPL)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사진)

조세호는 지난 29일 웹 예능 '핑계고'에 출연해 유재석, 이동욱, 남창희와 함께 설 명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유재석과 이동욱은 조세호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는 브랜드의 가디건이 예쁘다며 "이런 건 왜 안 주느냐"고 핀잔을 줬다.

조세호는 "드리는 건 좋은데 저는 만드는 사람이라 (제 브랜드 옷을) 자주 입는다"며 "입으면 (사람들이) 팔려고 입었다고 뭐라고 한다. 그래서 샤넬을 입었더니 자기 거 안 입고 샤넬을 입는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후 이동욱이 PPL 제품을 홍보하자 조세호는 과거 PPL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프로그램에 PPL이 들어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보시는 분들이 유쾌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녹여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툴러서 박살이 났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남창희는 "내가 옆에서 봤다. 하나도 안 녹았다. 그냥 덩어리였다"고 꼬집었고, 이동욱은 "그 얘기를 너희 채널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세호는 "잘 안 봐주시니까. 많이 보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광고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녹였지만 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기내서 말씀드린다. 잘해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세호의 사과에 남창희는 "모든 것은 다 본인에게서 시작된 거니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격려했다.

앞서 조세호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혼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패션 브랜드를 과도하게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팬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조세호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따끔한 질책도 함께 부탁드리며, 구독자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뉴시스

아이린, 결혼 깜짝 발표 "평생 함께하고픈 사람 만나"

모델 아이린(38)이 결혼한다.

아이린은 30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결혼사진을 공개하고 "오늘 제 삶이 완전히 바뀐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사진)

그는 "이 소중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가족과 가까운 이들 곁에서 조용히 간직해왔다"며 "늘 제 삶과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는 걸 좋아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반지나 프러포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작은 순간들이 쌓여 특별한 무언가의 토대가 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며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루하루 새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아이린은 "앞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조금씩 더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항상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번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여러분 저 결혼해요"라고 전했다.

2012년 모델로 데뷔한 아이린은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다. 이후 크리에이터,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영역을 확장했고, 2016년 미국 포브스의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CEO', 미국 '타임'의 '세상을 바꿀 차세대 리더'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뉴시스